

## 전력선통신 이용 원격검침 본격화 전망

전력선통신을 이용한 원격검침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전력연구원은 전기연구소, 서울대, 켈라인과 공동으로 산자부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인 '고속전력선 가입자망 개발'을 수행, 지난 9월 30일 '전력선통신을 이용한 원격자동화 기술개발'을 완료했다.

전력연구원이 이번에 개발한 전력선 원격 검침시스템은 전력선에 고주파 신호를 첨가해 통신을 가능케 하는 전력선통신기술을 한전에 적용, 수용가

의 전력량계 정보를 원격으로 검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력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 기술이 실용화되면 보다 신속하게 정확한 고객관리가 가능해져 고객서비스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력연구원은 최근 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원격검침을 자동화하는 기술을 개발, 시스템 시연회를 가졌다.

## 몰드 변압기 가격인상 움직임

추석을 전후해 국내 시판용 몰드 변압기의 가격이 일제히 올라갈 것으로 알려졌다.

LG산전, ABB, 효성, 현대 등 국내 몰드변압기 생산업체들은 10월 부터 판매가를 종전가격에 비해 약 15% 가량 인상하기로 각각 내부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업체들이 이번에 판매가격을 올리게 된 것은 그 동안 업체들간의 치열한 시장확보전으로 지속적으로 가격이 인하돼 원가이하 수주로 인해 적자운영이 불가피하게 되자 이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보인다.

국내 몰드변압기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후발업체인 ABB가 국내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 시장을 확보하기 시작하면서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

여왔다.

이번 가격인상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몰드변압기 생산업체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가격현실화에 대해 논의를 한 후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각사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몰드 변압기 가격인상에 대해 LG산전의 한 관계자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격으로는 도저히 적자운영을 면치 못할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에서도 이미 공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ABB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도 "그동



안 수익보다는 시장확보를 위해 매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현시점에서는 적정가격의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하고, "다만 인상시기는 올해 10월과 내년 1월 1

일 등 2회에 걸쳐 인상을 추진하려는 안도 있었지만 10월부터 인상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 한국 구매조달학회 공식 출범

전자상거래와 시설공사 계약제도등을 연구하는 한국구매조달학회가 공식 출범했다.

한국구매조달학회는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학계,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등 회원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구매·조달 관련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민간기업을 비롯하여 공기업, 정부기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조달학회의 창립으로 구매·조달 분야에 대한 국내의 학문적 기틀이 마련되고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의 전문지

식 및 구매정보의 교류가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학회는 앞으로 구매·조달의 기초연구와 전자상거래 및 시설공사계약제도 등 응용연구, 그리고 그에 따른 학술대회, 학술지 발간, 각종 교육제도를 연구하게 된다.

김성호 조달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구매활동이 국민 경제가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강조하고 학회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구매분야의 학문적인 체계를 이룩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중국국제입찰망 개통

중국의 기계 및 전기제품 국제입찰을 공정하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 베이징 비렌(必聯)정보기술회사가 최근 중국국제입찰망(www.chinabidding.com)을 개통했다. 중국국제입찰망은 대외경제무역부의 권한을 부여받아 국제 입찰과 채굴 업무를 대행한다. 이 사이트는 연채굴량이 약 50억 달러에 달하는 기계 및 전기제품의 국제 입찰과 2천억 달러 이상인 기계 및 전기 제품의 관리 플랫폼을 제공한다.

중국국제입찰망은 지난 5월 부터 시험적으로 운영돼, 1천여개 입찰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입찰 서류 제작, 자격 심사, 입찰 공고, 입찰 서류 온라인 판매, 입찰, 경과발표 등의 업무를 제공했다.

지난해 중국의 전기 및 전기제품 국제 입찰 총액은 37억 8600만 달러, 실제 낙찰액은 31억 1,200만 달러에 달했고 평균 외화 절감률은 17.8%인 것으로 조사됐다.

## 북한, “전력계통 실시간 감시조종체계” 완성

북한은 최근 전력생산과 공급을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통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전력계통 실시간 감시조종체계’를 완성해 전력공업 부문의 컴퓨터화·정보화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내각 전기공업성 기술자들은 컴퓨터에 의한 전력계통 운영지휘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력계통 실시간 감시조종체계’를 완성함으로써 각지 발전소의 운영상태를 종합적으로 감시 조종하고 전력생산과 공급에 관한 실태보고와 일별 순별, 월보자료들을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됐다고 노동신문이 최근 밝혔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감시조종체계’는 각지 화력, 수력발전소들의 전력생산현황 자료를 입력해 전력소비와 연료소비 상태에 대한 분석 통계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전력계통의 부하곡선도 컴퓨터 화면에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감시조종체계’의 자료기지에서는 각지 수력발전소 저수지들에 차있는 수량에 대한 정보도 입력되어 전력생산을 체계적으로 지휘하고 전력수급의 정상운행을 보장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 수출 피해중소기업 자금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미국 테러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계약서(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상 금액의 90%이내(15억원 이내)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우선 항공수송상 선적지연, 수출대금 회수 지연, 원부자재 조달 애로, 연중 또는 기간별로 일정하던 주문물량의 감소, 바이어의 연락두절 등 피해 사례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수출중소기업이 수출일정지연, 대금회수 지연, 물량감소등 구체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2억원 이내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조건은 1년 거치 3년 상환이며 대출금리는 6.25%이다.

피해업체는 중소기업 일반경영 안정자금 신청서 및 피해를 입증할 서류(L/C, B/L, 대금입금지연서류 사본 등)를 구비해 중진공 각 지역본부로 신청하면 된다.

## 1상 3상 동시사용 이용량 변압기 개발

변압기 전문 제작 업체인 한양전기(대표:이지수)가 3상4선식 결선방식을 채택해 1상 3상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량 변압기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것으로 실용신안과 EM마크를 획득했으며 조만간 상용화될 예정이다.

이 제품은 전력손실이 낮은 저손실형으로 설치가 쉽고 설치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전원단자가 내부에 있어 외부의 충격으로 부터 제품의 고장을 줄일수 있으며 제품의 부식을 방지하

고 내구성 강화를 위해 특수 재질을 사용해 누전에 의한 선로 화재사고나방수를 예방할 수 있다. 이제품은 또 외부의 이상 전압에 의한 충격에 대비해 변압기 내부에 자기보호장치를 내아하고 있어 수명이 긴 것도 특징이다.

회사 관계자는 “약 2년의 개발기간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개발한 것으로 기존 변압기와 비교해 성능이나 에너지 절감효과가 뛰어난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 유통업체뿐아니라 제조업체도 가세

꾸준한 연구, 기술개발 필요 신중론도 전력량계 유통업체들이 최근 들어 전자식 전력량계로 주력품목을 바꾸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전이 단계적으로 전력량계를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어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전자식 전력량계는 검침원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원격검침, 피크 관리 등의 장점이 있어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전력량계 유통업체인 태창전기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전자식 전력량계의 매출액이 30%정도 늘어나고 있으나 기계식 전력량계는 수요가 점점 더 줄

어지고 있어 시장의 흐름에 따라 주력 품목을 바꿀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식 전력량계 제조회사인 음니스시스템은 올해들어 전자식 전력량계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200%정도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이에 대한 생산 설비와 유통망 등을 점검하고 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기계식 전력량계는 7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지금의 전자식 전력량계는 측정오차범위가 크게는 33%까지 나오는 제품이 있어 시간을 두고 꾸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 보급시켜야 한다”고 말해 전자식 전력량계의 빠른 확산에 대해 신

중한 반응을 보였다.

## 한전, 서울전력구건설처, 설계용역 착수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일대 택지 개발지구의 전력 공급을 위한 신안산분기 전력구가 설치된다.

한전 서울전력구건설처는 공사비 150억원 규모의 신안산분기전력구공사에 착수키로 하고 설계용역사업에 착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전력구공사는 향후 신설예정인 신안산변전소와 성포·남안산변전소간 송전선로 계통을 연결하는 것으로 신규 택지개발 지구에 대한 전력공급능력을 확

충하고 인근 변전소의 과부하 해소를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건설처는 약 15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 터널식 전력구 850m와 개착식 전력구 1천 250m, 관로 2천300m와 수직구 2개소 등의 건설을 추진한다.

건설처는 이곳 전력구공사를 위해 최근 5억원 규모의 설계용역사업에 착수했으며 향후 1년간 용역사업을 진행한 뒤 내년 7~8월중 건설공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 한국, ISO 이사국 선출

한국이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24차 국제표준화기구(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총회에서 2년임기의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총 140개 회원국을 두고 있는 ISO의 이사국은 18개의 의석으로 구성, 국제표준화 활동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분, 선출하며 1그룹에 상임이사 5개국, 2그룹 및 3그룹에 비상임이사 5개국, 4그룹에 비상임 이사 3개국이 배정되어 있다.

금번 ISO총회에서는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7개 이사국에 대한 교체·선임 투표가 실시됐으며 우리나라는 5개 이사국을 선출하는 2그룹에 출마, 스웨덴

에 이어 2위로 당선되는 쾌거를 이뤘다. 동 그룹에는 한국, 스웨덴과 함께 캐나다, 스페인, 인도 등 5개국이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번 ISO 이사국 피선은 지난 92년과 96년에 이어 3번째로 이룬 성과로, 앞으로 국제표준을 제정하는데 있어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으로써 시사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

한편, ISO는 세계 140개 국가의 표준화 기구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표준의 대표기구로서, 국제표준 제정을 통해 국가간 교역을 원활히 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